

한자의 형태와 의미를 가구에 적용하기 위한
디자인 방법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Method by Translating the Shape
and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into Furniture

위 한 립

한자의 형태와 의미를 가구에 적용하기 위한 디자인 방법 연구*1

위 한 림*2

A Study on the Design Method by Translating the Shape and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into Furniture

Han-Lim Wee

목 차

- | | |
|------------------------------|-------------------------|
| 1. 서 론 | 4. 한자의 가구디자인 적용과 전개 |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4-1.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조형성 분석 |
| 1-2 연구방법 및 범위 | 4-2. 한자의 의미 분석과 가구의 기능 |
| 2. 한자(漢字)의 구조적 분류 | 4-3. 한자의 입체적 전개 |
| 3. 육서(六書)에 따른 디자인 적용의
가능성 | 5. 결 론 |
| | 6.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for translating the images and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into furniture. Using Chinese characters as designing sources for furniture has a lot of possibilities to inspire originative and creative works.

When using images of characters, totally peculiar and new shapes of furniture which have great esthetic value can be considered. The functions of furniture are related to the meanings of characters. Therefore, the furniture could be recognized by the characters from which the works were formed.

I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two dimensional letters in three dimensional forms, the graphic elements and values of the characters as two dimensional objects should be analyzed. In order to express the characters completely, both esthetic shapes and the essences of characters should be blended. For the effective translating work, the method of expression may require exaggerating, simplifying and abbreviating the shapes of characters.

*1 이 논문은 협성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2 협성대학교 가구디자인 학과, Department of Furniture Design, Hyupsung Univ., Hwasung 445-745, Korea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디자인에 있어서 훌륭한 조형미(Esthetic Form)를 표현하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 내는 것은 디자인 주체(Designer)와 대상(Item)에 따라 상대성이 작용한다. 가구에 관련된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아이템을 디자인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으로 진행된다.

기능적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해 본다면 하나는 사용상의 기능¹⁾의 효율성을 최우선하는 대상과 또 다른 하나는 조형성과 그것에 의해 표출되는 개성이 사용의 기능에 우선되는 대상이다. 전자의 경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글래스박스(Glass Box) 접근법으로 다루어지는데 주로 오피스 가구나 공공용가구, 특수가구 등이 이에 속하고 후자의 경우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이며, 직관적인 블랙박스(Black Box) 접근법으로 다루어지는데 이는 개인의 취향을 살린 가정용과 인테리어 소품의 아이템으로 제품의 조형성과 개성이 사용자의 심리적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한 기능²⁾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무엇을 디자인하느냐에 의해 디자인 진행의 과정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하고자하는 대상물이 무엇이나는 것을 먼저 숙지하고 파악하여 그에 맞는 합리적이거나 감성적인, 아니면 두 가지를 병행한 알맞은 프로세스를, 혹은 그 디자인만을 위한 독창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방법론 중에서 개인의 개성과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디자인하기 위한 독창적인 접근법을 실험하고자 한다. 감성적 형태의 접근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다른 사물의 형태를 은유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대입하

는 방법이 있다. 이는 과거의 전통 기법에도 보이는데, 동물, 식물, 추상적 기하학 형태들을 디자인 대상물의 전체 혹은 일부에 대입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대입법에 의한 방법으로 한자를 모티브로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조형성과 정교함이 이미 매우 다듬어져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과, 그 뜻이 자신의 형태를 나타내는 형태와 뜻의 연관성, 그리고 한자의 서예적 예술성이 가구디자인의 발상 및 전개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가구디자인의 대상물에 대입하는 방법론을 모색하고자한다.

문자는 인간이 만들어낸 순수창작의 조형형태 중에서도 매우 역사가 깊고 잘 다듬어졌다. 또한 연속성(Continuity)을 갖고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그 형태가 일반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도 정교하게 인식되었는데, 세실 와드(Cecil Wade)는 그의 저서 <모던 레터링과 레이아웃(Modern Lettering and Layout)> 첫 페이지에 “레터링은 문자디자인에 있어서 개성과 독창성에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고 매우 엄격한 장인 정신과 예민한 예술적 식별력을 요구하는, 상업예술의 매우 전문화된 분야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³⁾고 말했다. 그만큼 활자는 순수 조형적 가치측면에서 볼 때도 매우 정교한 디테일과 완성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한자를 보면 그 구조의 조직원리가 ‘형(形)’, ‘음(音)’, ‘의(義)’로 이루어져있는데, 다른 표음문자(表音文字)들이 ‘형(形)’과 ‘음(音)’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한자는 각각의 글자에 그것의 고유한 뜻을 포함한다. 이 중에 ‘형(形)’, ‘의(義)’는 디자인의 구성요소인 ‘형태(Form)’와 ‘기능(Function)’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즉 한자의 형태는 가구의 조형성을 표현하고 한자의 뜻은 가구의 기능을 설정하는데 사용된다. 결국 한자가 상형문자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루이스

1) 사전적 의미와 협의의 의미로서의 기능 즉, 사용상의 목적으로서 기대되는 제품의 객관적 역할이며 주로 제품의 사용시기가 해당된다.
2) 넓은 의미의 기능으로 제품이 지닌 가치와 기능이 절대적이지 않고 시기와 상황, 그리고 사용자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 있다.

3) Cecil Wade: Modern Lettering and Layout, Pitman Publishing Co., 1, (1950).

H. 설리반(Louis Henry Sullivan)이 주장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⁴⁾라는 말과 통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가구기능의 범주를 인간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에까지 확대 해석하였으므로 프로그디자이너(Frogdesign)의 하르트무트 예술링어(Hartmut Esslinger)가 선언한 “형태는 감성을 따른다(Form follows emotion).”⁵⁾라는 주장을 동시에 따른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디자인의 전개와 실험에 있어서 그 대상을 가구로 정했고, 그 기능(Function)의 정의를 통념적인 실용적 기능(Utility Function)보다는 인간의 감성과 공간의 연출에 미치는 효과로서의 심미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이는 기능의 상대성(Relativity)으로, 사용자의 상황이나 시점에 따라 도구의 기능은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가구를 공간과 인간 사이에 ‘의미’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로 파악하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한자를 모티브(Motive)로 한 가구 디자인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2차원적 요소인 ‘문자’에서 3차원의 입체적 ‘도구’로의 효과적인 전이(轉移)를 위해서, 축소, 확대, 생략, 강조, 메타포(Metaphor)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형적 특징과 기능성의 교차점(交叉點)을 찾아보고자 했다.

2. 한자(漢字)의 구조적 분류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한자의 기원은 약 4500여 년 전 중국왕의 한 사관인 창힐이라는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약 3500여 년 전에 비로소 기록문자로서의 체계를 갖추었

고 약 2000여 년 전에 오늘날의 한자와 같은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널리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한자는 생성원리에서 육서(六書)를 기본으로 하는데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가차(假借)’, ‘전주(轉注)’로 분류된다.

① 상형(象形)문자-Pictographs : 사물의 생김새를 그대로 본뜬 글자로서, 날-일(日), 달-월(月), 뫼-산(山), 나무-목(木) 등이 이에 속한다.

② 지사(指事)문자-Ideographs :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한 글자로서, 위-상(上), 아래-하(下), 근본-본(本), 끝-말(末) 등이 이에 속한다.

③ 회의(會意)문자-Logical Aggregates : 이미 만들어진 기본 상형문자나 지사문자들을 논리적으로 조합하여 연관된 의미를 표현한 글자로서, 밝을-명(明), 믿을-신(信), 좋을-호(好), 쉬-휴(休) 등이 이에 속한다.

④ 형성(形聲)문자-Phonetic Complexes : 역시 두개의 기본 글자의 조합으로 한자의 대부분이 이 패턴에 해당된다. 하나는 소리의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뜻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해밝을-청(晴), 청할-청(請), 좋은 쌀-정(精), 느낌-정(情), 형태-형(形)등이 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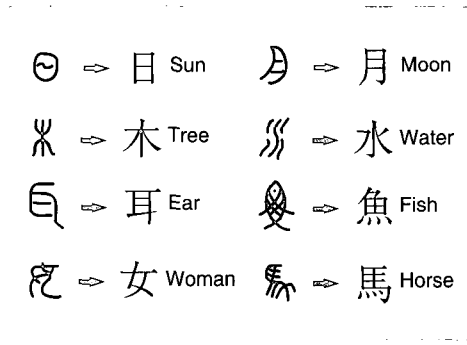
⑤ 전주(轉注)문자-Transformation Type1 : 하나의 글자에서 관련된 의미로 파생된 글자를 말하는데, 한 글자에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노래-악(樂)이라는 글자가 관련된 의미로 파생되어 즐거움-락(樂), 즐길-요(樂) 등으로 확장 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

⑥ 가차(假借)문자-Transformation Type2 : 의미보다는 발음 때문에 쓰인 글자로 주로 외래어 등의 표기를 위해 사용된다. 아시아를 아세아(亞細亞), 러시아를 로서아(露西亞) 등으로 표현 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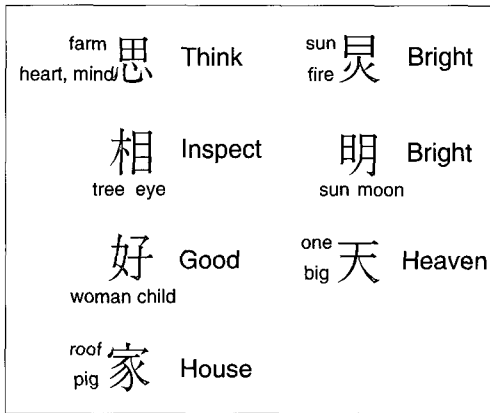
4) 이병중: “형태는 감정을 따른다” 하르트무트 예술링어, 디자인, 통권 270호, 12월호, 160-161, (2000)

5) 이병중 : “형태는 감정을 따른다” 하르트무트 예술링어, 디자인, 통권 270호, 12월호, 160-161, (2000)

다음 [그림 1]과 [그림 2]는 상형과 회의문자의 예이다.



[그림 1] 상형(象形)문자의 사례



[그림 2] 회의(會意)문자의 사례

3. 육서(六書)에 따른 디자인 적용의 가능성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가차(假借)’, ‘전주(轉注)’의 육서(六書)는 다양한 코드로 변환되고 해석되어 구체적인 디자인 작업으로 전개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구디자인 적용에 주로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육서는 ‘상형(象形)’, ‘회의(會意)’인데 이는 형태가 비교적 단순하고 그 원리가 한자 형성의 기본을 이루며, 글자의 생김새나 조합의 원리에서 글자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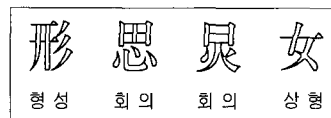
그러나 지사(指事)도 추상적인 의미로서 사

물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추상형태의 조형적 기본개념으로서, 인간의 추상적 인지력에 바탕을 두었으므로 의미와 형태간에 상관관계가 성립된다. 형성(形聲)이나 전주(轉注)는 적어도 조합된 글자의 한 부분이 전체 글자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전체의 의미에서 파생된 관련성이 있는 의미로 전환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만약에 한자의 의미가 디자인에서 기능이나 상징에 포함 되어야한다면 역시 최소한의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독 가차(假借)만이 한자의 뜻과는 관계없이 소리만을 나타내기 위한 글자인데 한자가 포함하는 고유한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외래어의 발음 표기나 의성어 등의 소리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진정한 한자의 구조와는 거리가 많고 또한 최근에 주로 쓰이므로 진정한 의미로서의 한자, 즉 고유한 형태와 소리와 의미가 존재하는 한자와는 조금 거리가 있고 비중 또한 약하다. 따라서 거의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한자는 디자인 소스로서의 사용이 가능하다. 심지어 가차(假借)역시도 의미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그 형태의 조형성만을 추구한다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한자는 가구로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자의 형태, 구조, 그리고 형태가 뜻하는 글자의 의미가 가구의 기능(Function)으로 전환(轉換)될 수 있는지, 혹은 단지 한자의 형태와 의미를 가구의 형태적 특징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면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림3]의 4가지 글자 ‘형태-형(形)’, ‘생각할-사(思)’, ‘여자-녀(女)’, ‘밝을-경(昀)’은 그 의미를 가구의 기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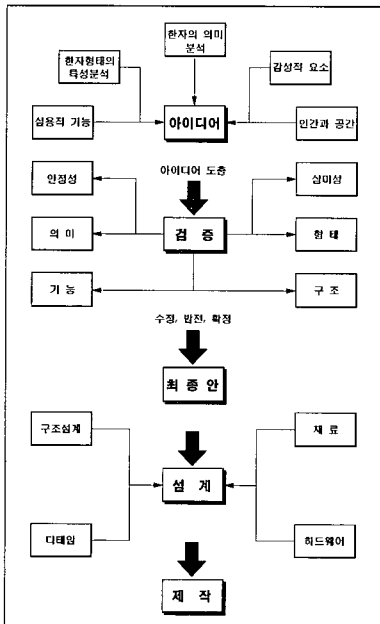
[그림 3] 한자의 의미가 디자인의 기능으로 적용 가능한 사례

4. 한자의 가구디자인 적용과 전개

이 글자들은 형태에서 출발한 상형문자와 이를 기본으로 조합을 이루는 회의문자와 형성문자로서 이들의 형태가 곧 뜻을 암시하고 있다. 즉 디자인적 관점에서 본다면, “제품의 형태는 기능으로부터 나온다.”는 이론과 연관성을 맺고 있다. 한자의 의미를 제품의 기능에 적용시키기 위한 아이টে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한 자	의 미	관련 가능 아이টে	의미와 연관성 (기능)
形	형태, 모양	장식장, 전시장	도자기, 조각품, 혹은 조형적 가치를 갖는 전 시품의 진열
思	생각, 사고	장식장, 수납장, 책꽂이	옛 추억의 회상 (기념 품장식), 지적 사고행위 (독서)
빛	밝다	조명	환하게 함, 빛의 연출
女	여 자	화장대	아름다움의 표현, 여자 의 본능, 여자만의 공간

[그림 4] 의미와 기능의 연관성



[그림 5] 발상과 전개의 프로세스

4-1.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조형성 분석

모든 활자들은 의미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위한 기호이다. 그러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문자는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단지 시각적 조형성을 갖는 그래픽 요소로 인식 될 뿐이다. 따라서 똑같은 활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기호수단으로 사용하는 자국인의 인식과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바라보는 조형적 인식은 사뭇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순수한 조형적 인식이 문자의 의미에 의한 습관적인 필터링에 의해 둔해진다. 흔히 우리가 이집트의 문자를 대할 때 그것이 하나의 훌륭한 장식적 문양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것이 의미를 위한 기호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의미 전달 수단으로써의 활자를 회화에 적용하기 시작한 시도는 1910년대 큐비즘의 브라크(Georges Braque)와 피카소(Pablo Picasso)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캔버스 상에 놓인 활자는 당시 직면했던 형태가 갖는 기호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하나의 해결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큐비즘의 타이포그래피는 문자나 숫자, 문장부호의 형태로 스텐실 처리를 통하거나 인쇄물을 콜라주하고 경우에 따라서 손으로 직접 그리는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알파벳이나 숫자의 이차원적 특성은 캔버스라는 제한적 상황에서 3차원적 대상을 묘사하고자 시도를 실현시키는 새로운 수단이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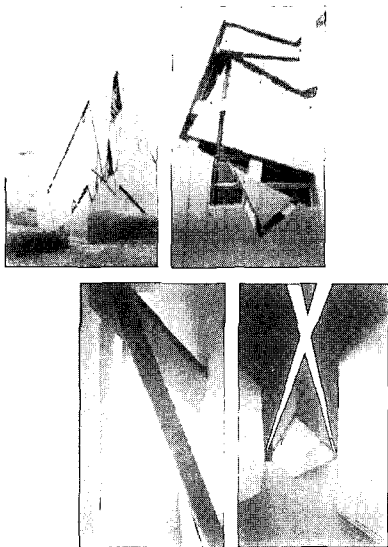
이런 형태적 가치는 비단 평면적 요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모든 활자가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구성요소는 건축의 조형적 구성을 위한 모티브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우리는 실제로 해체주의 건축이나 공간에서 활용된 타이포그래피의 디자인 구성 요소를 발견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평면적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입체적이며 기하학적 구성에 의한 공간 연출에 중요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 Susan Matcus, The Typographic element in Cubism, p323, (1972), 이병주, 해체주의 건축드로잉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 특성 연구, 한국디자인학회지, vol.15, no.4, p351, (2002)에서 재인용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에 의해 베를린에 건설된 유대박물관(Jewish Museum)[그림 6]은 전체적인 건물의 설계와 구성이 기호적이며 타이포그래피적인 암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당시 암울했던 유대인의 일상과 베를린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제재와 말살을 표현하고자 했고 따라서 건물의 구성적 키워드는 ‘부재’, ‘비워짐’, ‘보이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한 무의 공간을 만들었다. 따라서 전시장의 내부에는 전시할 것이 없고 건축구조물 자체가 전시물인 셈이다.

“실제로 베를린에는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몇 안 되는 자료, 문서들조차 (유대의) 존재를 알리는 것보다 없어진 존재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것들만이 남아 있다.”⁷⁾

따라서 없어진 것에 대한 표현을 위해서는 유대인의 상징과 심볼을 건물 전반에 나타낼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것은 다분히 타이포그래피적 기호학의 조형요소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6] Jewish Museum(Berlin, 2001)의 실외와 실내에서 나타나는 타이포그래피적 구성요소들

그러나 지금까지 시도된 대부분의 타이포그래피의 회화적 재구성은 활자 자체의 순수한 형태의 조형성과 기호학적 변화, 그리고 이들 집합체를 조합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메타포(Metaphor)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다수의 문자 집합체에 의한 재구성의 개념이 아닌, 하나의 한자가 지닌 추상적 조형 요소에서 얻을 수 있는 가구의 구조적, 조형적 형태의 관계 그리고 한자의 의미가 내포하는 개념을 유추하여 가구의 기능을 표현함으로써 가구디자인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한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예는 시적 의미의 감동을 전달하고 그 의미 전달 이상의 시각적 구성과 조형성을 바탕으로 둔 형태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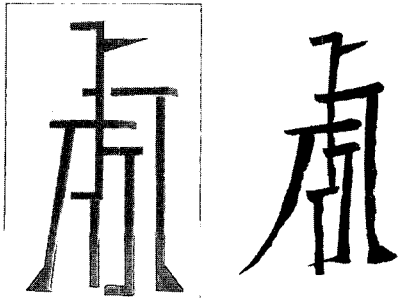
이러한 서예의 조형적 구성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이용한 대표적인 작가 중의 한 사람은 일본의 가구디자이너인 신야 오카야마(Sinya Okayama)이다. 그의 작품에서 그는 유럽 모던 디자인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일본 전통 예술⁸⁾의 추상적 요소를 이용함으로써 완화시켰다. 그는 동·서양의 전통과 모티브 그리고 재료를 등을 어색함 없이 조화 시켰다. 그의 많은 작품들은 서예의 필력을 연상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Kotobuki’[그림 7]라는 그의 작품에서 보듯이 그는 종이 위의 붓과 먹에 의한 표현(서예의 필체)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론은 그만의 고유의 창조적 디자인 프로세스이다.⁹⁾

그러나 그의 작품도 역시 활자의 필체에서 얻을 수 있는 조형적 특성과 가치를 입체화하는 것에 만 그 초점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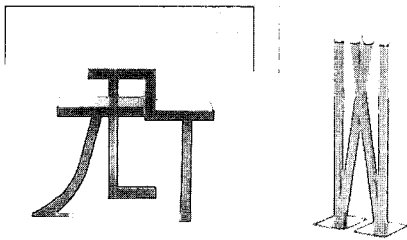
7) Peter Noever(ed), Architecture in Transition: Between Deconstruction and New Modernism, p68, (1991), 이병주, 헤체주의 건축드로잉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 특성 연구, 한국디자인학회지, vol.15, no.4, p355, (2002)에서 재인용

8) 일본의 전통 서예를 말한다.

9) <http://www.banaldesign.com/okayama/okayama-d.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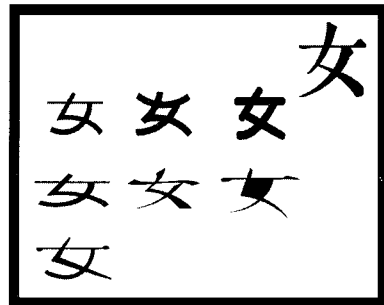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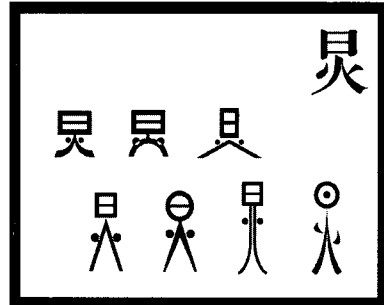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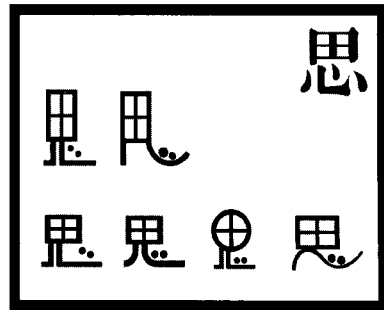
[그림 7] Shelves 'Kotobuki', Sinya Okayama, 1989



[그림 8] (좌)Table 'Hikari', (우)Lamp 'Ayame', Sinya Okayama, 1989

한자를 디자인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한자의 외형적 특징과 조형미를 표현하고 동시에 그 글자가 의미하는 뜻을 디자인 대상물에 표현해야한다. 외형적 조형미의 표현은 단순화, 과장, 생략, 강조 등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실용적 형태와 조형미의 교차점을 찾는다. 한자의 의미를 디자인 대상의 기능과 디테일로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을 찾아서 구체적인 조형의 언어로 표현하여야한다.

한자의 형태적 이미지를 입체화하는 방법으로는 1단계로 시각디자인의 관점에서 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과정 등을 통해 한자의 평면적 형태를 다양하게 변형하고 2단계로 그 변형된 2차원적 이미지[그림 9]를 입체물로 재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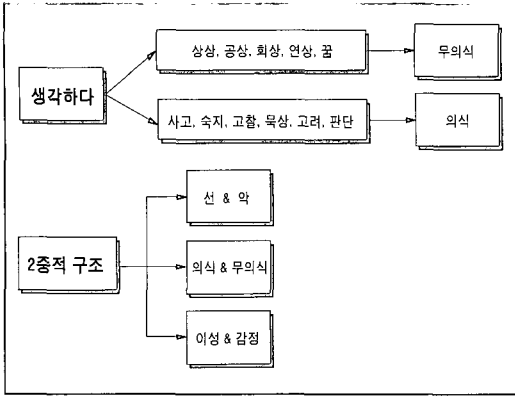


[그림 9] 한자의 평면적 변형 사례

4-2. 한자의 의미 분석과 가구의 기능

‘생각할-사(思)’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본다면, ‘밭-전(田)’과 ‘마음-심(心)’의 다른 두 글자들이 합쳐진 형태로서 분류 상 회의(會意)문자(Logical Aggregates)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상상’, ‘공상’, ‘회상’, ‘연상’ 등의 무의식적인 정신작용과 ‘고민’, ‘고려’, ‘인식’, ‘숙고’ 등의 의식적인 사고 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선과 악,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감성 등 이중적인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들 중에는 2가지 다른 양상의 대비(Contrast)를 이루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8] '思'의 의미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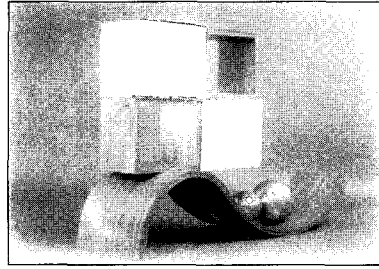
한자의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뜻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혹은 간접적인 연상 작용에 의해 얻어지는 행위를 디자인 오브젝트의 주 기능에 포함시킨다.

'생각하다'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 8]과 같이 그 속에 담긴 뜻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분류해볼 수 있다. '생각하다'라는 행위는 크게 무의식과 의식의 작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상이나, 공상, 회상, 연상, 꿈 등은 의식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에 가까운 자동 발생적 정신 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숙지, 고찰, 묵상, 고려, 판단 등은 특별한 목적 의식을 갖고 노력해야하는 '의식'적 정신활동에 속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능적 목적을 수행한다.

첫째, 무의식적 사고의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의 회상과 관련이 깊은 아이템 즉, 과거의 추억을 담은 기념품이나 소형 액자를 전시하는 것을 대표기능으로 삼는다.

둘째, 의식적 사고의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활동의 대표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독서'를 상징하는 책을 수납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그림 10]



[그림 10] Cabinet & Bookholder '思', 마호가니, 메이플, 스테인레스 스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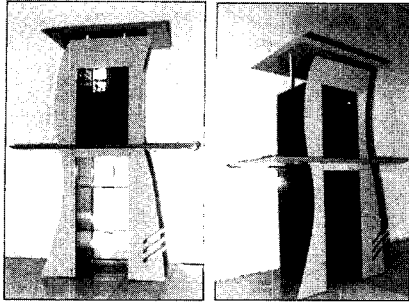
[그림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구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한자의 조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인 형태의 특징은 '대비'라는 조형적 코드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하다'라는 의미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2중적인 대비 구조를 상징했는데, 그 대비 구조는 나무와 스틸의 대비,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의 대비, 나무의 밝고 어두움의 대비, 스틸 볼의 크고 작음의 대비 그리고 직선과 곡선의 대비가 전체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4-3. 한자의 입체적 전개

한자는 2차원의 평면적 조형요소이다. 따라서 전개 과정에서 그 구성을 아무리 아름답게 변형했다 하더라도 3차원적 입체로서의 가구를 위한 새로운 입체구성을 이루어야 한다. 입체구성의 정도는 대략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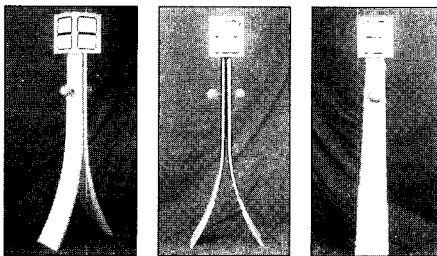
첫 번째 단계는 거의 평면적 단계로서 루돌프 아르하임(Rudolf Arnheim)이 설명하는 원시적 입체의 표현단계에 해당한다. 즉 입체적 표현을 추구함에 있어서 "한 대상의 특정한 면모(Aspect)나 투영은 그 전체를 대표하려는 경향을 띤다."¹⁰⁾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한자의 조형적 특징이 가구의 구조를 이루는 입체적 형태 전반에 적용되기보다는 전면부 등 일부 평면에서만 적용되었으므로 입체의 가장 기본적인 원시적인 접근 단계이다. [그림11]

10) 루돌프 아르하임,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흥성사, p140,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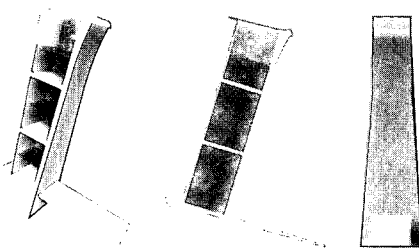


[그림 11] Display Shelf ‘形’, MDF위에 전사필름 및 우레탄 도색, 스틸 봉, 유리

두 번째 단계는 2차원의 평면상태에서 변형된 한자를 입체적으로 돌출시킨 단계로 한쪽 방향으로 익스트루드(Extrude)시킴으로써 한자의 평면 형태를 입체로 늘려 놓은 구조이다. 가구의 입체적 구조 전체에 한자의 특징이 형성 되므로 어느 정도는 입체로 느껴지기는 하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입체적으로 돌출시켰기 때문에 여전히 몇몇 한정된 각도에서만 한자의 입체적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12],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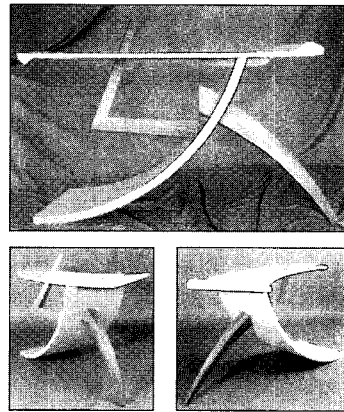
[그림 12] Floor Lamp ‘炆’, 애쉬목, 한지, 스틸



[그림 13] CD Rack ‘耳’, CG 이미지

세 번째 단계는 정돈되고 확실적인 구조에서 벗어난 해체 구조적 단계로서 진정한 의미의 입체라고 볼 수 있다. 한자의 특징은 정돈된

기하학적 확실성 보다는 필체의 미묘한 각도와 굵기 등의 차이에 그 조형적 특징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평면에서의 그래픽 모디파이(Modify)에서 뿐 아니라 입체적 구성에서도 한자의 특징이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한자의 특징이 입체적 구조로 느껴져야 한다. 입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한자 형태의 구성에 구조적 균형과 안정감¹¹⁾을, 그리고 심리적 얻기 위해서 45도나 90도 등의 정각 연결을 피하고 어긋나고 틀어지는 엇각의 연결 구조를 취한다. [그림 14]



[그림 14] Dressing Table ‘女’, 마호가니, 플라이우드 위에 메이플 무늬목

세 번째 단계의 입체화 작업은 보다 적극적인 입체화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자’라는 단어의 뜻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구체적 조형성을 위한 의미의 유추와 확장에서 얻은 결과의 영향도 있다. 이는 ‘아름다운’, ‘매혹적인’, ‘우아한’, ‘부드러운’, ‘섬세한’, ‘포근한’, ‘화려한’, ‘연약한’, ‘때로는 강인한’, ‘난해한’, ‘변덕이 심한’, ‘복잡한’ 등의 ‘여자’를 암시하는 형용사¹²⁾적 해석이 가구의 디테일과 조형의 재구성의 기본 원리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난해한’, ‘변덕이 심한’, ‘복잡한’에 해당하는

11) 공간을 구성하는 입체형태에 있어서 안정감을 말한다. 인위적이고 확실화된 연결 구조와 정면 위주의 구성은 전체적인 의미의 입체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안정적이지 못하다.

12) 이는 단어 의미의 연상 작용에 의해 얻어진 통상적인 혹은 주관적인 해석이다.

구성원리로서 해체적 입체의 구성방법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는 어긋나고 틀어지는 형태를 취했으며, ‘아름다운’, ‘부드러운’, ‘섬세한’ 등의 표현을 위해서는 다른 한자의 작업들에 비해 더욱 곡선적이고, 섬세한 표현¹³⁾을 첨가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두 개의 대립되는 색상의 대비는 ‘여성’의 두 가지에 대한 지극히 상반된 대립요소의 표현이다. 그 것은 첫째로 ‘이성으로서의 여성’과 이에 대한 ‘모성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상대적 대비를 말할 수 있고, 둘째로는 여성의 육체적으로 타고난 ‘연약함’과 이에 비교되는 정신적 ‘강인함’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여자라는 대상이 지닌 대표적인 대립적 구성요소이다.

5. 결 론

가구는 매우 문화적인 도구로서, 다른 현대적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인류 문명의 변천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도구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친숙한 도구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제품군과는 분명히 다른 차별성이 있다. 가구의 기능은 비단 사용상의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전통양식에서 볼 수 있는 가구의 변화를 보면 이는 기능적 접근에 의한 사용 편의성의 개선을 위한 변화의 추구라기보다는 다분히 기존의 형태에 대한 차별화에서부터 출발한 심미적 욕구의 만족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구는 제품이라기보다는 건축과 인테리어에서 공간의 활력과 장식성을 첨가하는 기본 요소로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구들은 대량 생산과 모더니즘의 절대적인 영향으로 원래의 공간 연출의 기능보다는 사용 편의와 생산성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물론 가구 중에서도 다양한 아이템이 존재하고 그 아이

템에 따라서 접근방식과 디자인의 관점이 달라져야 하겠지만,¹⁴⁾ 공간 연출의 기능이 사용의 편의성에 비해 무시되지 말아야 하는 아이템에서 조차 산업주의의 발상에 묻혀서 공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본연의 가구 개념이 많이 희석되어진 듯 하다.

많은 가구디자이너들이 모더니즘의 건조함을 떨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패턴(Pattern)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공간의 일부로서의 가구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가구의 의미로의 회귀(回歸)를 의미할 수도 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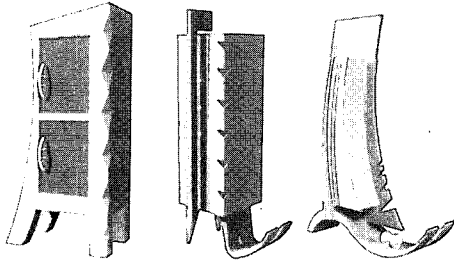
한자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물의 형태를 표현한 상형(象形)문자와 관념적 의미를 표현한 지사(指事)문자가 그 구조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이는 한자의 형태가 이미 그 뜻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구 디자인 모티브(Motif)로서의 한자의 사용은 다른 문자의 사용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가능성이 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로 변형한 입체물의 한자는 여전히 문자로서의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의 한자성어, 문장 등을 표현한다면 가구의 도구적 사용과 공간의 연출 기능 뿐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간에서 문장의 의미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집안의 가훈을 액자에 걸어 놓듯이 공간 안에서 좋은 의미를 전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3차원의 개념을 초월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5]

지금까지 많은 작가들이 디자인과 조형 작품 발상의 모티브로서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다.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의 형태, 기하학적 패턴이나 문양, 움직임, 또는 추상적 관념이나 사상 등의 직설적 혹은 은유적 표현 등을 작품에 반영하여 그들만의 조형적 언어와 구성 방법으로

13) 예를 들어 상판의 한자의 획에서 볼 수 있는 묘사와, 상판과 다리부분의 곡선적 표현

14) 사무용이나 공공용, 혹은 특수 목적을 위한 가구는 보다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 접근이 바람직하며, 일반 가정용이나 개인을 위한 가구는 앞의 가구류에 비해 감성적이고 심미적인 접근 방법이 바람직하다.

15) 표현 방법 등의 구체적인 의미로서의 회귀가 아닌, 가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등의 관념적 회귀를 말한다.



[그림 15] '월'(月), '충'(忠)의 한자를 이용한 캐비닛 디자인¹⁾

재창조한다. 이러한 작가들의 시도는 디자인의 독창성과 개성의 표현을 극대화 시키고 이는 디자인의 다양성과 상대적 가치상승을 유도 할 수 있다. 또한 기호와 개성이 보다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 안에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 시킬 수 있으며, 특히 한자의 의미와 형태를 디자인 발상과 전개에 모티브로서 활용함으로써 인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의 가구를 디자인하기 위한 독창적인 발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단지 디자인의 조형적 독창성 뿐 아니라 가구의 형태가 의미하는 뜻이 공간을 꾸밈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공간 속에서 가구를 사용하고 형태의 조형미를 즐기며 그 속에 담긴 뜻을 느끼고 음미할 수 있는 정신적 작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단지 일반적으로 형태만을 다루던 기존의 입체 디자인 영역을 뛰어넘는, 조형과 의미가 동시에 인간의 감성에 작용하는 3차원 이상의 또 다른 차원의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1. 루돌프 아르하임,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홍성사, 1986
2.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인간, 사회, 그리고 자연을 생각하며), 미진사, 1995
3. 이병중, "형태는 감정을 따른다" 하르트무트 에슬링어, 디자인, 통권 270호, 12월호, 160-161, 2000

4. 이병주, 해체주의 건축드로잉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 특성 연구, 한국디자인학회지, vol.15, no.4, 2002
5. Cecil Wade, Modern Lettering and Layout, Pitman Publishing Co., 1950
6. Han-Lim Wee, Chinese Character as Sources of Design for Furniture,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1998
7. Mathews, R.H., Shanghai, Chinese - English Dictiona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8. Product Design in Japan, Rikuyo-Sha Publishing, Japan, 1990
9. <http://www.banaldesign.com/okayama/okayama-d.html>
10. http://www.galinsky.com/buildings_jewishmuseum
11. http://users.sinology.org/pendar/full_index.htm
12. http://hanja_dic.zonmal.com/